

# 해남군 현우농장, 한우 동물복지축산농장 전국3호 인증

### 유기 조사료 급여 등 철저한 사양관리로 고품질 한우 생산 연간 60여두 고품질 한우 출하 연매출 1억원 이상 소득 달성

해남군 황산면 소재 현우농장이 전국 3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다.

현우농장은 110여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철저한 기록관리와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했다.

2018년 깨끗한 축산농장,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2020년 HACCP 인증, 2021년 유기축산물 재인증을 받고 이번에 단계를 높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현우농장은 가족 운동장을 활용한 적정사육밀도를 유지하는 동물복지형 축사관리

와 함께 복합영농을 통해 직접 재배한 유기조사료를 급여하는 고품질 사양관리로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를 생산하고 있다.

현우농장 고민호 대표는 2010년부터 축산업을 시작해 전문 축산 노하우를 익이기 위해 고대표가 순천대 동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부부가 함께 전남농업 마이스터대학을 수료할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 유기한우영농조합법인을 조직

해 전국 최초로 한우유기 인증에 성공하는 등 한우산업 발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우농장에서는 연간 60여두의 고품질 한우를 출하해 연매출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쾌적한 사육환경, 가족의 스트레스 최소화 등 가족복지 준수여부를 확인 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시행 이후 총 391농가(한우 3, 젖소 31, 돼지 17, 닭 340)가 인증을 받았다.

특히 한우분야에서는 해남군 만희농장에서 1호 인증을 받는데 이어 현우축산에서 3호 인증을 받아 해남군의 선도적인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현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3호 인증(우 고민호 대표, 좌 아내 김옥순씨)

## 진도군, 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등 코로나19 응급 대응

진도군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맞아 검사·진료·먹는 치료제 처방 등 원스톱 대응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입부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BA.2.75 및 BA.5)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으며, 진도군은 한달 동안 확진자 수가 246명으로 6월과 비교해 3배 가량 증가했다.

군은 최근 재유행 대응 방안 구축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진도한국병원과 코로나19 응급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진도한국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속·적절한 진료를 제공한다.

또 진료 후 자율 입원으로 이어져 응급진료·입원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확진자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의료기관을 진도한국병원, 진도전남병원, 속편한 과내과 등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진도군 보건소는 24시간 재택지원관리 상담센터(061-540-6052)를 7월부터 다시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코로나19 재유행 본격화와 재택치료 체계 개편이라는 과도기에 서 있다"며 "군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빠르게 진료와 치료를 받아 안심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 강진군에 싱가포르 관광객 온다

### 남해안 국제 관광 선도 도시를 위한 신호탄

강진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바다)은 싱가포르 여행사 중 하나인 이유출리데이와 공동으로 강진군 역사 이래 최초로 강진군의 주요 관광자원이 포함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식상품으로 등재했다고 지난

7월 2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4월 한국관광공사 추천 비대면 안심관광지 125선으로 선정된 강진만생태공원과 강진군 성전면에 위치한 이한영 차분화원, 강진회춘당, 병영불고기 등 강

진을 대표하는 볼거리와 먹거리로 구성된 강진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재단은 올해 8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11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현지 박람회에도 참가해 직접 여행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김바다 대표이사는 "강진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외국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이 늘 아쉬웠다. 이번 상품 등재를 계기로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강진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진만 생태공원과 같은 비대면

안심관광지를 더 많이 발굴해 안전한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그동안 대도시 중심의 국제관광문화에서 벗어나 강진군이 남해안 국제관광 선도 도시로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더 많은 나라에서 강진 특화 여행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무더위 정조준' 장흥 물축제, 대장정 시작

### 관광객과 지역민이 주인공인 축제...오는 7일까지 개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7월 30일 시원한 물싸움으로 9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축제 첫날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에 참가한 축제 인파는 쏟아지는 물줄기 속에서 물싸움을 벌이며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올해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공예태후 호위행렬을 재현한 역사 테마 프로그램으로 연출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퍼레이드 행렬이 탐진강변에 이르자 살수대첩의 열기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장으로 이어졌다.

달아오른 축제의 분위기는 밤까지 계속됐다. 장흥군민 100인의 연주로 시작한 개막 행사는 마중물 합수식, 불꽃놀이,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펼쳐졌다.

이날 풀파티는 박명수, 주주, 블러트 밴드가 DJ로 등장해 관객들을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장흥, 사람과 물을 연결하단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물축제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흥=김도영 기자

## 완도군,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주민 지방세제 지원

### 완도군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및 세무 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지방세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 소분 등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1차례 추가로 연장하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 고지 세목도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 등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세무 조사 연기도 가능하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